

#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 뭉쳐 뇌라

## 25면에서 계속

그것은 맥에서 이 깊은 마음속의 자기, 즉 말하자면 수없는 과거를 형성시켜 오고 진화시켜 온 그 장본인에게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즉 말하자면 의식 속에서 화해서 들리는 소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형상이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부처님이 바로 앞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말하자면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집착할 게 없죠, 생각 자체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도 맥을 가르치기 위해서 빛으로 보여 주고 환으로 보여 주고 그렇게 걱정 마라 이라는 것도 들려 왔는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일임하고 '감사하구나' 하지, '아, 내가 이렇게 저거 했으니 뭐 좀 알려나 보자.'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주인공에서 화해서 오는 그런 소리니까요. 그리고 이 몸속의 이 모습, 그 의식들이 그렇게 아프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내 집 식구가 아닌, 내 집 식구라도 내 집 식구처럼 하지 않고 딴 식구로 변경이 돼 가지고 나를 압박을 주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임을 맡아 가지고, 위의 소임을 맡았든 장의 소임을 맡았든 대장, 소장, 척수, 척추 이런 데로 다 맡아 가지고 있는 소임자들이 어떤 때는 간신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몸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전부 다스리는 바로 자기 주인공에다, 모조리 다스리는 그 주인공에다, 자기 영혼도 다스리고 자기 그 생명들의 의식들도 다스리고 그러한 자기 참주인공, 거기다가 다 맡기세요. 거기다 맡기시면요, 그것이 체험이 되고 알아질 겁니다.

### 조부모님 산소를 이장하다...

문) 얼마 전에 조부모님 산소를 선산으로 이장을 하다가 어머니가 불편해지는 일을 당해서 스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이제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선원에 다니는 오래 되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음알이로만 공부해 하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체를 내 몸과

같이 볼 수 있어야만이 내 가족과 내 조상을 손색이 없이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답)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이 혈(血)을 볼 때, 어디는 어떻게 어디는 어떻게 이렇게 따진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각본대로, 운명대로 좋으면 좋은 거,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자기가 한 거만치 그대로 받게 됩니다. 또 토질·혈·맥(脈)이 나쁜 것만치 생체들이 나빠지고 나무들이 나빠져서 열매가 작아지는 수도 있고 커지는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도 묘를 써도 그 마음에 따라 잘 되고 잘못되고 그러죠.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각본대로 받게 돼 있거든요, 팔자 운명 이런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각본대로 나오는 걸 나오면 그 자리에다가 다시 놓으면 이전에 테이프에 감긴 것이 다 지워집니다.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업보대로, 각본대로 나오지만 다 녹아서 지금 현장에서 영원토록 참자유인이 돼서 살면 영원토록 미래 과거도 없이 자유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그 모든 혈맥을 끊기 위해서 산에 큰 쇠말뚝을 많이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빼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 한생각이면 두루 전체를 그냥 몰락 뺄 수가 있다. 또 그게 들어 있어도 몰락 뺄 수가 있다는 점은 혈(血)을 끊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건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혈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 한꺼번에 몰락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 나도 없습니다. 쇠말뚝은 박혀 있되 쇠말뚝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묘지를 쓰셔서 식구가 잘못되고 죽고 이라는 분량이 일 어났으니, 묘지를 어디로 이장을 해야 할 텐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지방년

(至亡年)을 당해서 이장할 돈도 없습니다." 이러 거든요. 그래서 알겠노라고 했는데, 그 '알겠노라'고 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령만 들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묘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혼백(魂魄)만 들어내면 되죠? 그래 승천시키면 되죠.

그런 법도 있고 이런 법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그러니 자유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보배입니까? 이렇게 싱그러운 이런 묘법을, 우리가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산의 혈(血)이라는 것도 모두 우리 몸체의 혈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유마힐 거사가 "중생들이 병이 나오면 내 병이 낫노라"고 말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내 몸을 이루는 이 몸 안에 중

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계발을 못하고 계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져오겠습니까? 역사나 우리나라의 형편이나 이런 것을 이 공부하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나 통일적으로나 또는 국방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전체 국민적으로나 내 몸으로나 전체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바람도 생명이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벌름 집어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그냥 벌름 집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생명들이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라면, 그 모습과 내 모습이 둘이

에 공금해서 여쭙습니다. 정말로 깨달음에도 차원이 있는지요?

답) 네.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죠. 통달한 사람한테는 없는 거고요. 나를 깨달았다 하면 금방 날아 놓은 어린애와 마찬가지로 금방 날아 놓은 어린애, 그래서 '깨달았어도 깨달았던 말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어도 깨달았던 말 하지 말고 다시 뭉쳐 놓아라!' 그런 게 있고요. 또 나를 깨달았다고 해서 어린애가 사회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애가? 그러니까 어린애가 성장을 해야만 되는 것이 점수와, 점점점 자라는 것이 점수와 딱 자라서 다 된 사람이 돈오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돈오는 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에게도 그 차원이 있습니까?' 할 때 깨달은 사람도 그렇게 점수와 돈오가 있는데 그 점수와 돈오가 둘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자라는 것도 옳고 다 자란 것도 옳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옳다 옳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것도 없고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무(無)' 했던 말입니다. 그거를 이론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면의 세계,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인과가 된 그 뭉쳐진 업보, 악업 선업이 다 한데 뭉쳐져 있는 그 의식들, 그것이 막 그냥 솟구쳐서 나오는 대로 꼬달리지 마시고 지켜보라 이겁니다. 모든 걸 자기 자신의 주인공에게 맡겨 놓고 거기서 나온 거니까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탁 놓고선 지켜보는 게 관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출장 생활하시면서 어떤 게 안되더라도 거기다 그냥 맡겨 놓고 '안되게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그러곤 탁 맡겨 놓고 믿으세요. 믿고 지켜보세요. 하나하나 그렇게 지켜보고 나가세요. 이론으로 따지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위 법문은 1994년 12월 11일 국내지 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보대로, 각본대로 나오는 걸 나오면 그 자리에다가 다시 놓으면 이전에 테이프에 감긴 것이 다 지워집니다

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말입니다. 많은 그 생명들이 한데 합쳤기 때문에 유마힐 거사가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는데 유마힐 거사가 '그 중생들이 나와야 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내 태초의 모습이 내 배 속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전부 나 아님이 없어요. 내 혈을 타고 전부 세포마다 있는 이 자체가, 지리에 관한 것도 거기에서 조금조금 방법만 틀리지만 전부 똑같습니다. 혈의 맥이나 서로 통하는 거나 통하는 거나 전부, 전체 일체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한 점의 마음입니다. 한 점의 마음이 우주의 섭리를 한 세트로 갖다 놓고선 하나하나 닦치는 대로 쓰듯이 그것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고 찰나찰나 나투는 그 묘법을 우리가 두루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쪽짜리 나라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 나왔더라면 그렇게 되질 않았습디다. 여러분이 잘하지 못했

절대로 그거는 또 그뿐입니까? 어떤 혹성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병고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도 그렇고 한쪽에만 퍼지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모습 없는 모습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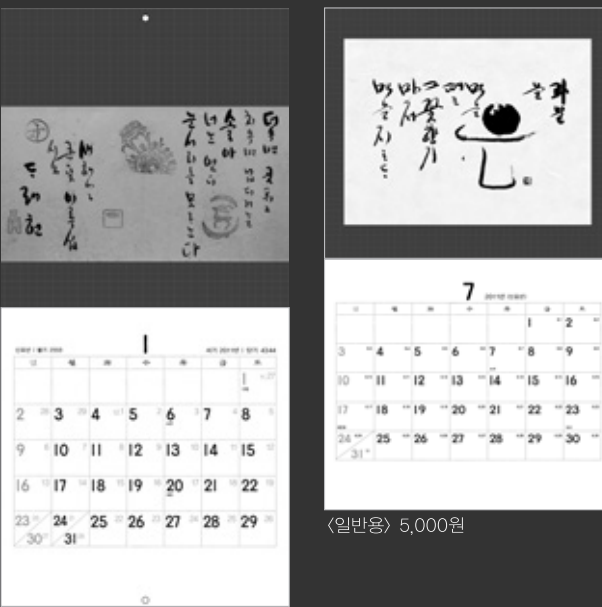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이끌고 가실 수 없다면 가정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사회를 끌고 가며, 국가를 끌고 가며, 통일을 바라보며, 어떻게 세계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를 조절 못한다면 우주를 어떻게 조절하겠습니까? 이 한 점에, 한 점도 내놓을 수 없는 한 점에, 이 마음에 달렸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너무도 고차원적이라고 하겠지만 고차원적도 아니고 고차원적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섭리가 그대로 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입니다.

### 깨달음에도 차원이 있는지요

문) 깨달으면 그 경지가 다 똑 같은 것 같은데 혹자는 깨달음에도 차원이 있다는 소리를 하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법정스님 선묵 달력, 2011년(신묘년)



###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판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무소유의 향기, 법정스님의 선묵 禪墨

영혼의 사리 99점 수록

법정스님이 남긴

영혼의 사리 99점 수록

도서출판 다래현 / 값 30,000원  
 법정스님이 생전에 도반과 지인들에게 붓글씨로 써준 편지, 업서 등을 대원사 티벳박물관장인 현장스님이 모아 펴낸 화보집입니다.



## 부처님의 향훈을 따라가는 불교성지순례

한국불교 2000년 최초의 가이드북! 12년간 인도-네팔의 불교성지 순례와 7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완성된 책으로 단순한 가이드북이 아니라 성지와 유적들에 대한 내용과 역사적인 배경을 사 진과 함께 실었다. 직접 인도-네팔을 오가며 자료들을 수집한 스님의 노력 덕분에 이 책 한권이면 인도-네팔에 성지순례를 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대연스님 | 국판변형 | 컬러 | 382쪽 | 20,000원 | 이스트워드

## 산사에서 배우는 불교

산사를 속속들이 알려주는 불교입문 교과서! 전국의 유명사찰 108곳을 정해놓고 5천여 불자들과 함께 매월 순례를 다니면서 신행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도선사 주지 선묵 해자스님이 '불교입문 교과서'로 불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책을 펴냈다. 불상과 전각 등 각 주제를 설명할 때마다 한국불교를 대표할 만한 관련 사진을 풍부하게 실어 불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선묵 해자스님 | 신국판 | 컬러 | 519쪽 | 25,000원 | 연중출판

